

## [원앤제이 갤러리 6월 전시 《FW19》 보도자료]

## 1. 전시 개요

---

전시 제목	FW19
작가명	김병조 윤희로 (Jo Kim and Hyangro Yoon)
일정	2019년 6월 11일(화) - 7월 7일 (일)
오프닝 리셉션	2019년 6월 11일(화) 오후 6시
입장료	무료
전시 장소	원앤제이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14)
관람 시간	월요일 휴관 (오전11시 - 오후6시)
웹사이트	<a href="http://www.oneandj.com">www.oneandj.com</a>
보도 관련 문의	원앤제이 갤러리 (02-745-1644, <a href="mailto:info@oneandj.com">info@oneandj.com</a> )

## 2. 전시 소개

---

‘디자인이 예술을, 예술이 패션을 참조하고 대체하는 시대에  
화이트 큐브에서 디자이너와 예술가는 무엇을 선보일 것인가?’

원앤제이 갤러리는 오는 6월 11일 (화)부터 김병조와 윤희로의 《FW19》를 개최한다. 이는 두 작가가 2018년 겨울 소쇼룸에서 진행한 협업 콜렉션 《SS19》의 다음 전시로, 그래픽 디자이너 김병조와 예술가 윤희로가 서로의 방법론과 기술을 결합하며 작업한 ‘준-사물 (semi-product)’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준-사물’은 디자인이 예술을, 예술이 패션을 참조하고 대체하는 시대에 화이트 큐브에서 디자이너와 예술가는 무엇을 선보일지에 대한 물음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개념이자 작품이다. 이는 정교한 타이포그래피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 사물 (text object)’이라는 언어적 사물을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와 스스로 ‘유사 회화 (pseudo painting)’라고 명명하며 대중 매체 이미지를 최신 이미징 기술로 전유하는 추상 회화를 탐구하는 예술가가 서로의 매체와 산업을 침범, 협업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기술적으로는 이차원 그래픽에서 삼차원적 사물을 도출하는 김병조의 방법론과 역사적 이미지들을 전유하는 윤희로의 방법론을 결합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작품과 문서,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가진 일반적인 역할을 참조, 대체하며 궁극적으로 창작 방식과 매체 형태의 재고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시 《FW19》는 디자인사와 예술사의 역사적 이미지들을 토대로 사물의 형태가 어떻게 예술에 가까워지는지, 예술의 형태가 어떻게 사물로 도망갈 수 있는지 질문한다. 전시장에 놓인 작품들은 시계, 창문, 조각, 베이스보드처럼 한번 설치되면 건축의 일부로 고정되지만 건축이 아닌 사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사물들은 평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폴리곤처럼 관찰자에게 평면적으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작품들은 대리석, 나무 같은 전형적인 조각의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얇은 철판을 절곡해 만들어졌으며 표면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위장되어 있다. 일종의 노멀 매핑(normal mapping)을 위한 재료로 선택된 얇고 딱딱한 인테리어 필름은 평면으로부터 최소한의 부피를 가진 조각을 도출하고, 전유된 원작의 재료를 재현한다. 두 작가는 이러한 사물의 위치를 일탈시키거나, 속성을 바꾸어 더 굴곡진 낯선 공간적 경험을 창출하는 동시에 이차원적 매체가 가질 수 있는 촉각적 경험을 탐구한다. 하나의 작품을 위해 형태나 재료가 전유된 작가와 디자이너는 펠릭스 마르텐스(Felix Martens), 댄 브루터스(Dan Broodthaers) 같은 제목으로 남겨진다.

이 외에도 전시와 함께 도록들이 발간될 예정이다. 사진가 박기수의 이미지와 비평가 윤원화의 글이 담긴 「1권」과 건축가 정현의 글과 작품 설계도, 시뮬레이션 이미지로 구성된 「2권」은 사물들을 다시 이차원의 세계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7월 7일(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월요일 및 국가 공휴일 휴관)

### 3. 작가 소개

---

김병조 (Jo Kim)

그래픽 디자이너. 1983년생.

타이포그래피 기반으로 사물의 형태를 탐구하고 있다. 홍익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홍익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타이포그래피 사전」 (2012년)의 공동 저자이며, 「다국어 타이포그래피의 기술적 문제」 (2016년)와 「낮설고 익숙한 “보고서\보고서”」 (2016년) 등의 학술 연구를 발표했고, 「활자 기술」 (2019년)을 번역했다. 「글짜씨」 (2011-2014년), 「16시: 앞으로 앞으로」 (2014년), 「AIR」 (2017년) 등의 여러 출판물과 뱀비 (2017년), 글립스 산스 (2018년) 등의 활자체를 디자인했다.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문화역서울284, 2013년), 《XS: 영 스튜디오 콜렉션》 (우정국, 2015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18년 단독전 《SS19》를 시작으로 예술가 윤향로와 함께 협업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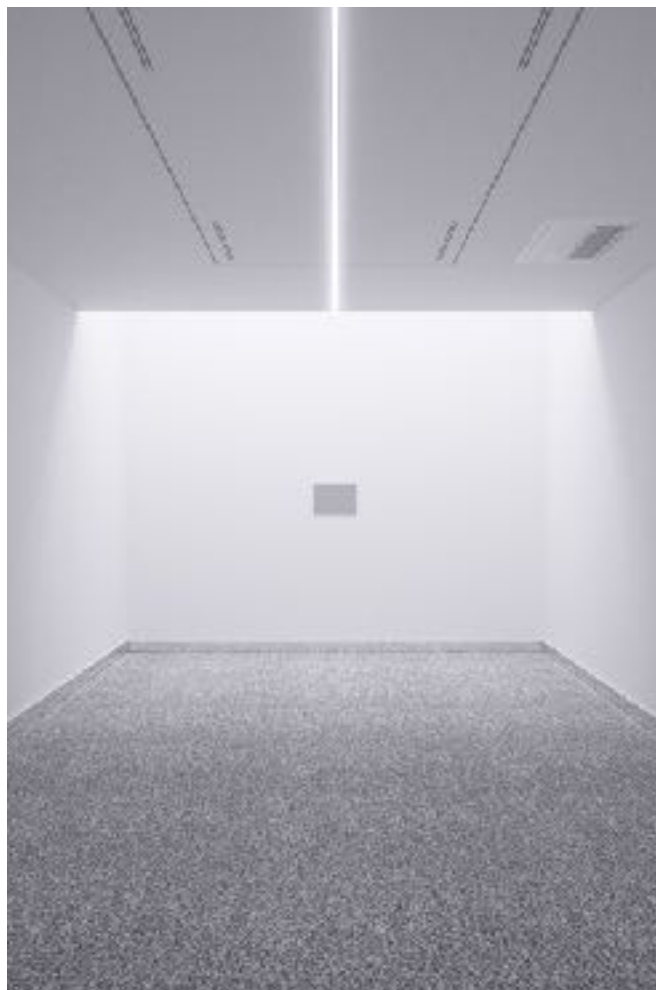
윤향로 (Hyangro Yoon)

예술가. 1986년생.

동시대 이미징 기술과 연합하는 추상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Short Cuts》 (갤러리175, 2012년), 《Blasted (Land) Scape》 (인사미술공간, 2014년), 《Screenshot》 (One and J. +1, 2017년), 《Liquid Rescale》 (두산갤러리 뉴욕, 2017년), 《Surflatpictor》 (P21, 2018년)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굿-즈》 (2015년) 등을 공동 기획했다. 《젊은모색 2014》 (국립현대미술관, 2014년), 《평면 탐구: 유닛, 레이어, 노스텔지어》 (일민미술관, 2015년),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아뜰리에 에르메스, 2017년), 《Reality Check》 (소더비 인스티튜트 뉴욕, 2017년), 《IN-D-EX》 (서울시립미술관, 2018년), 《상상된 경계들》 (광주비엔날레, 2018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년 단독전 《SS19》를 시작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김병조와 함께 협업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 4. 작품 이미지

---



© 김병조, 윤향로 2019년 (3D 이미지: 초타원형)